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주일입니다.
- 교회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담임목사 청빙건에 대한 설명회가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설명회 후에 방장모임이 있습니다. 후반기 방모임은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 제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모이고, 이어서 공동의회가 모입니다. 안건은 정재훈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며, 교육관에서 비대면과 병행하여 모입니다.
- 공동체학교 후반기 전체 학부모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35 호

2021년 9월 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2021년 새해를 맞은 지 벌써 아홉 달이 지났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이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알려줍니다. 다들 9월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9월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달빛이 곱고 아름답다.' 하여 가월(佳月)이라 하고, '가을철에 내리쬐는 햇볕이 맑고 신선하다.'라는 뜻으로 추양(秋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대학생들은 9월을 '개강'이라고 읽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계절로 나눌 때, 8월은 여름이 끝나고 9월부터 가을이 시작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가을을 보통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말 풀이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란 뜻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늘이 맑고 청명하며, 말이 살찌 정도이니, 말을 돌보는 사람들은 더 풍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말의 속뜻은 '봄부터 여름까지 초원에서 키운 말들이 살이 잔뜩 찼으니, 북방의 흉노족이 이제 곧 남쪽으로 쳐들어와 식량과 가축을 노략해 갈 것이니 주의하라.'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래를 알고 보면 약간 예상 밖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 속뜻은 다 사라지고 말뜻만 남아서 가을의 풍요를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로 불립니다. 한 해 애써 지은 농사의 결실을 보는 계절이어서 그렇겠지요. 사실상 발작물은 파종시기와 수확시기가 가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오곡백과(五穀百果)를 수확하는 시기가 가을에 몰려있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많은 사람에게 기대를 줍니다. 가을에는 추석이 자리하고 있어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최소한 사흘의 휴식을 가져다주며,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사과, 포도, 배 등 다양한 제철 과일이 나와서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줍니다. 이맘때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가을 단풍을 보러 오르고 싶은 산의 목록이 주루룩 떠오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을 하늘은 다른 계절과 다르게 유난히 높고 맑아서 사람들에게 바깥으로 나가도록 유혹합니

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다들 주의해야 하는 게 맞겠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가을을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대를 갖는게 좋을까요? 가을은 성숙의 계절입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올 한해를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될 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에 한 매듭을 짓고 간다면, 그간 부족했던 신앙의 모습이나 경건의 훈련을 다시 결심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사랑과 화합보다는 경쟁과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최근의 사회면 뉴스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고등학생 사건, 20개월 된 여아를 강간 살해한 20대 남성사건, 오랜 친구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동창생 사건,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가치 그리고 생명윤리가 훼손되는 사건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너무나 가볍고 자기중심적이며, 즉흥적, 감각적으로 삶을 욕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명 가치들을 마음에 품으며 우리 마음 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쓰시다. 기독교적 가치가 이제는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가치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요즘 참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참된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업적과 성과와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태도와 선택에서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약한 자를 보살피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72편

제목 : 그 영광을 가득 채워주소시오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419 212 325 299 218

1. 문단구분

- 1-7 왕의 정의와 공의가 있기를 기도함
- 8-11 왕의 영화가 온 땅에 임하길 바램
- 12-17 왕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기를

2. 내용의 의미(Why)

- 1) 왕이 그의 아들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가 있기를 기도 - 지도자에게 필요한 성품입니다.
- 2) 솔로몬왕은 다윗왕때 이룬 업적을 다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았 습니다.
- 3) 예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1) 정의와 공의를 가진 자녀가 되게 해 달라 기도하며 나와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 보여주자.
- 2) 지도자들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 견제하자.
- 3)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며 힘에 부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자.

교회의 보이지 않는 책임

기독교란 다른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이 모든 사람의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 그 정신과 뜻이 하늘나라 건설과 연결되는 데 근본과제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교훈인 복음이 교리가 되어야 하는 듯이 착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신학이 되면 충분한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우리는 그런 교회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자신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물질적인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일 자체가 목적임을 깨달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며,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을 위한 봉사에 있다는 가치관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중략)

사람들은 로마를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그 로마도 망했다.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로마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힘과 제도를 갖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무력에서 뒤 떨어지는 나라는 아니었다. 로마는 안에서 병들어 있었다 자기 동일성을 상실했으며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내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것이다. 구소련이 안에서부터 붕괴한 것을 우리는 잘 보아오지 않았는가.

그러면 로마는 어쩌서 내적으로 분열과 붕괴의 원인을 만들게 되었는가. 로마인들의 가치관 퇴락과 혼란이 앞섰기 때문이다. 가치관이 선의 의지와 신념을 잃고 협력과 봉사의 방향을 등지게 되면 사회는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신의를 상실하고 내적인 파국을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치관의 붕괴이며, 인생관의 반도덕적인 경향이 로마를 비롯한 모든 사회와 민족의 종국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교인들을 통해 교회가 우리 사회에 전하고 의로운 봉사의 가치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내용이다. 그것이 복음이며 하늘나라 건설의 첩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과 말씀의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을 인생의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96 : 1-2 인도자
3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이사야 55 : 7 인도자
286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요한복음 4 : 31 - 38 설교자
성가대 찬양 210 사랑방
설 교 “ 나의 양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 정재훈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515 다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 영광찬송 455(3) 다함께
* 위탁의 말씀 설교자
*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윤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양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던 여정 중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잠시 들렀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로 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홀로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다 마친 후에, 음식을 장만해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청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서는 양식을 보다 깊은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게 하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오르기 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부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신 이후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이며,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누리는 기쁨은 앞선 수많은 신앙선배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비가 좀 잦아들어 꾸러기 밭을 돌보았습니다. 방학 동안 다 여물어 수확을 마친 옥수수대를 뽑아 정리하고 토마토, 대추 토마토를 따고 가지도 따왔습니다. 방학 동안 따서 얼려두었던 토마토와 비를 많이 먹고 갈라진 토마토로 주스를 만들어서 공동체 밭 옥수수와 함께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방학 중에 끝났어야 할 교사들의 코로나19백신 접종이 개학 후로 연기되어서 꾸러기들을 돌보는데 차질이 생길까 마음이 쓰였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꾸러기 부모님들께서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 학교에서 꾸러기들을 보살펴주시기로 기꺼이 마음을 내주셨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집에 가서 이 소식을 알게 된 꾸러기들은 엄마선생님, 언니선생님과 함께 놀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점심 먹고 일찍 퇴근해서 금요일까지 교사들은 집에서 엄마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꾸러기 사진과 소식을 받아보았습니다. 꾸러기답게 모래로 만든 음식으로 넉넉히 대접도 하고 그네도 타고 에어바운스에서 뛰어 놀고, 읽어 주시는 책도 열심히 보고, 멋지게 인사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나서 몸은 살짝 힘들었지만, 부쩍 의젓해 보이는 멋진 꾸러기들과 교사들을 배려해주신 고마운 꾸러기 각 가정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여름과 가을 사이에서 개학을 하고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드높은 하늘에 달을 만큼 소리 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북적북적 잔칫날 같습니다.

휴게실이 사라진 자리에 테이블을 정리 해서 두었더니 또 나름 운치가

배움과 가르침

있고, 새로운 모래로 갈아입은 모래놀이터는 새옷답게 잘 아껴지고 있습니다. 학기 마다 바뀌는 목요일테마는 친구들의 마음을 꽉 채워주었는지 테마마다 재미있었다고 얼굴에 써붙여 다녀서 보기 좋았습니다. 트럼플린이 다시 열려서 펄쩍 뛰어 오르는 어린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백신접종도 이번주에 마무리가 되었으니 속히 그날이 올것만도 같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여행이 계획되어 있고 기도와 세밀한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다녀 올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이제 2021년도 2학기가 정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늦은 저녁 학교에서는 등교하는 멋쟁이학생들의 발랄한 인사소리가 넘쳐 흘렀습니다. 생활하면서도 밤마다 대화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방학동안 서로가 얼마나 변했나 즐겁게 확인했습니다.

2학기에 들어서 새로운 공동심화학습으로 [올림픽]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전 도쿄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6학년이 9월 모의고사를 다녀왔습니다. 앞길을 열심히 준비하고 탐색하는 노력들이 참 멋집니다. 앞으로 목요일마다 멋쟁이 풋살 리그전이 열립니다. 각 팀별로 유니폼도 맞춰 입을 정도로 마음들이 뜨거워서, TV에 나오는 경기처럼 준비해서 재미있게 해보려 합니다.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첫 주간이라 그런지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차 적응하리라 믿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이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놀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진지도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 보니 한창 뛰어놀아야 할 청년들도 어디에 나가서 놀지 못하고 인터넷 세상 속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혹시 'League of Legends(리그 오브 레전드)'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롤', 'LOL'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게임은 2011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벌써 10년에 가까워진 게임입니다. 한 때 PC방을 점령했던 스타크레프트를 제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도 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물론 할 일을 마치고 취미생활 하듯 적절히 하고 있으니 게임 중독에 대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애도 아니고 그 나이 먹고 또 게임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다만 왜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 모두의 생각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생각을 들려드리고 공감받고 싶습니다.

첫째,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탱커, 딜러겸 탱커, 누커, 포킹, 암살자, 원거리 딜러, 유틸, 힐러 등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의 게임 캐릭터를 고릅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나름의 쓰임이 있고 그 쓰임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설사 지더라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서로 격려합니다. 내가 무의미하지 않음을 그 짧은 게임에서나마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이 참 좋습니다.

둘째,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짧으면 15분, 길어도 50분을 넘지 않는 게임의 길이에서 승리와 패배가 공정하게 나눕니다. 남 탓을 하고 분해할 수 있어도 패배 자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꼬리가 이후 승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매 게임은 새로운 승부로 이어지고 새로운 도전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내가 하겠다는 의지만 중요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승부를 나누는 공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수습, 수백 만원짜리 컴퓨터 세팅을 하고도 PC방에 가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친구와 '함께'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혼자 게임을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함께하기에 밤늦게까지 노는 것이죠. 서로 대화도 하고, 장난치고, 때로는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축구나 농구를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에 함께 하면서 뒹굴며 마음을 맞추는 일이 생깁니다. 게임은 저희의 놀이터, 주차장, 농구 골대 같은 공간입니다.

네, 저희 잘 놀고 있습니다. ^^

디아코니아사랑방 조익 청년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하박국서 3장 1-4, 13-19

인도 : 이어진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일본 >

최근 일본에서 확진자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일주일에 15만명이나 확진되었고, 이로 인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은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거기에 더해 새로운 변이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만큼 한국에까지의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확진세가 누그러지도록 기도해주세요.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

1) 4월과 5월에 걸쳐 아나뱃티스트를 소개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강의들과 설교들이 명료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2) KAC 20주년을 맞아 한국 메노나이트(아나뱃티스트) 역사책을 만들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필자들이 역사를 잘 정리하고 좋은 내용을 담은 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3) 춘천에 있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줌을 통해 한국어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따뜻한 현대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사랑방공동체 >

1. 학교생활이 잘 이어지도록

2.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3. 계절의 변화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한 주는 개학 후 세 학교가 모두 등교한 주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방역과 오랜 시간 훈련되고 익숙해진 개인방역을 잘 지키면서 등교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꾸러기부터 멋쟁이까지 여러 학생들이 공동체 마당을 채우니 활기가 넘칩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날마다 그림과 같은 풍경을 선사해줍니다.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 이제 낙엽도 곧 지겠지요. 자연의 변화는 봐도 봐도 지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우리 일상도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새로움을 주고받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 정재훈 목사 >